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본 협회는 1986년 10월 15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에서 석유화학 공장의 방재대책을 중심으로 한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외의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4명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음은 그 중 본 협회 방재연구부 禹 茂차장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

## 1. risk management (위험관리)란?

### 가. 기업의 risk

기업경영의 목적은 투자 자본을 효율 좋게 운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또한 이것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 불확실한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원료의 과부족, 원료와 제품 가격의 급등, 하락 예견
- (2) 투자에 비하여 제품 수요의 예견(특히 신제품의 개발 판매등)
- (3) 생산수단(물적, 인적)과 생산자재의 감소, 소모, 손상사고의 유무
- (4) 생산수단의 결함, 과오, 제품의 잘못에 의한 배상책임 발생의 유무.

이들의 불확실 요인은 어느 것이나 경영상 손실요인으로 될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업 risk」라고 부를 수가 있다.

### 나. risk management

이들 다종다양한 기업 risk에 대해서 「기업경영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risk가 갖는 minus의 영향을 경상적으로, 그 위에 최적한 cost로서 control하도록 하는 경영관리의 한 기능」이 risk managemen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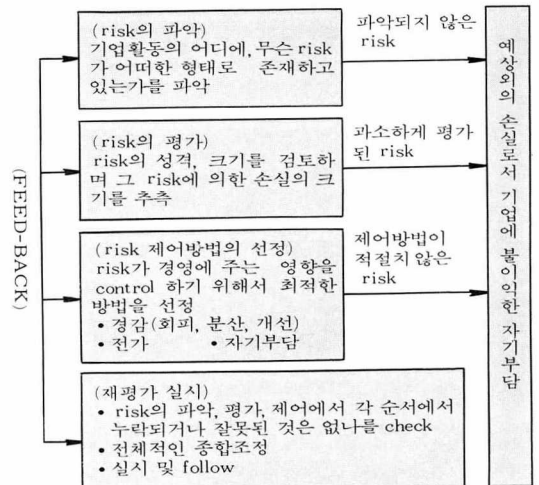
즉 risk의 존재 및 크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확한 control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지 못한 사고」, 「예상외의 손실」에 의한 기업경영상의 damage를 회피토록 하는 것이 risk management이며, 이는 경영목표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기능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risk management에서 대상으로 하는 risk “가”에서 열거한 기업risk의 예중 (1)과 (2)는 경영에 있어서 plus로 되거나 minus로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risk를 動的 risk 혹은 投機的 ris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통상 risk management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前記“가”의 (3),(4)와 같이 minus로서만 작용하는 risk이다(이 종류의 risk는 靜的 risk 또는 순수 risk라고 부른다). 물론 동적 risk에도 충분한 주의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자사의 경영방침과 조직에 합당하다고 하면 대상으로 하는 risk management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 라. risk management의 기본 step (process)

risk management의 기본적인 수법을 step을 쫓아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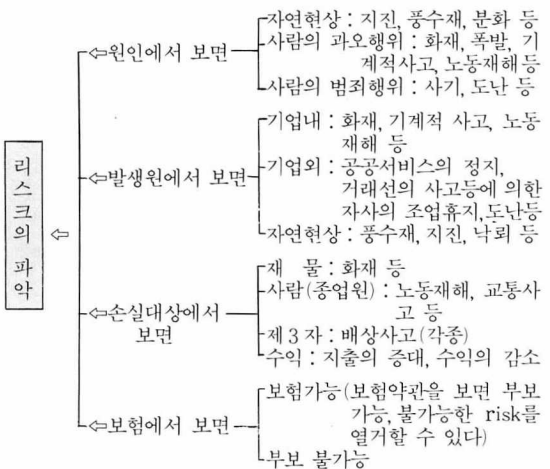


〈그림1〉 risk management의 기본 step (process)

## 2. risk의 파악

risk의 파악은 기업활동에 수반해서 어떤 risk가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risk management의 시작이다. risk 파악을 위한 하나의 approach방식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risk의 파악에 있어서는 대개 기업경영에 minus의 영향(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list-up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risk 전부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고」에 의한 「예상외의 손실」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내외의 정보·자료를 활용해서 부단히 생각해서 판정하고 추측할 필요가 있다.



(그림2) risk의 파악에 있어서 approach방법

## 3. risk의 평가

이 step은 파악된 risk의 빈도와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경영에 주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 1 참조)

(표1) risk의 평가

화재발생 빈도	큰 것		작은 것	
	기업에 연간 발생빈도 예측 가능	연간 발생빈도가 예측 곤란	작은 것	큰 것
1 사고당의 EML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연간손해액의 예측	가능	곤란	불가능	불가능
EML(또는 연간 손해액)과 기업재무와의 관련	경상비로서 처리가능		경상비로서 처리불가능	
	총자산, 자본금, 기간이익, 환금성이 높은 유동자산등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각 risk의 EML(또는 연간 손해액)이 몇%를 점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			
각 risk의 평가에 응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선택 실시할 것				

여기서 손실규모는 Risk의 추정최대손실(Estimated Maximum Loss : 이하 EML이라 약칭) 파악과 이의 영향에 기업이 견딜 것인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

Risk평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빈도만이 아닌 손실규모를 중시할 것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Risk는 대규모의 손실을 낳을 우려가 있는 Risk이다. 대규모의 것일수록 발생빈도는 적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발생예측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며, 기업이 risk를 문제로 하는 때는 발생빈도에 앞서 그의 손실의 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나. 하나의 사고재해에 의해서 다양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에 유의

표 2는 대표적인 두가지 risk의 주된 손실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risk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것들의 각종 손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평가가 불충분하면 역시 예상외의 손실을 기업 자신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화재·폭발 risk의 손실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화재·폭발에 의한 손실의 형태

① 직접 손실	건물, 기계, 설비, 장치, 집기, 비품, 원료등의 소손, 도괴, 파손, 오염, 수손, 연손, 부식, 변질등의 손실
② 이익·비용손실	사업의 정지에 의한 수익의 상실시장 상실 방지를 위한 특별비용 원인조사, 복구대책상의 제 비용 정리비용 종사원의 사망·부상에 대한 보상비용 종업원의 재 고용등
③ 배상책임손실	제3자, 종업원의 신체, 재물에 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등
④ 인적 손실	임원, 종업원의 사망, 부상

다. 기업간의 관계가 밀접화하고 있는데 유의

원료의 공급에서 제조·가공 더우기 제품의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간의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상호의존도) 차차로 강해지고 판매의 말단에 이르는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원료의 공급 maker가 사고재해에 의해서 부득이 操業休止에 이르게 되면 제조, 가공 maker·유통업자도 조업률 down등의 영향을 받으며, 한편유통업자가 재해사고를 일으켜서도 같은 양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사고·재해시에 있어서 상호의 손실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